

# 동교동계, 광주 서구를 보선 새정치 적극 지원

## 친노갈등 일주일만 봉합... 권노갑고문 내일 광주행 천정배·정동영 바람 차단... 野 선거판도 영향 주목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동교동계'가 7일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의 승리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1일 동교동계 인사들의 '선거지원 반대' 입장으로 촉발된 문제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노 그룹과 동교동계의 갈등은 진통 끝에 일주일 만에 일단 봉합된 형국이다.

아권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과 구(舊) 민주계를 상징하는 동교동계의 전면 지원 방침으로 천정배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광주 서구 을의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권노갑 상임고문을 중심으로 한 동교동계 인사들은 이날 오전 국립 현충원의 DJ묘역을 참배한 뒤,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별도로 만나 새정치연합 후보 지원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문제인 대표를 만나 이같은 동교동계의 입장을 전달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당후사의 정신에 공감하면서 당의 승리를 위해 적극 협력, 당과 함께 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지원방식 및 시기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할 것이며, 오늘이라도 당이 필요하면 저부터(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대단히 감사하다. 이제 우리가 모두 단합해 재보선 승리의 길로 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제 앞서 권 상임고문도 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동교동계 인사 50여명과 DJ 묘역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재보선은 물론 총·대선 등 정권교체까지 모든 힘을 합쳐 나아가자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권 고문은 "하나가 된다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서로 복돋워주고 꺼안

아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동참을 이끌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그 점이 어렵다"고 문 대표에 쓴 소리도 했다.

권 고문은 8일 정동영 전 의원이 출마한 관악을 호남향우회 회장단과 오찬을 함께 하는데 이어 9일에는 김원기 고문 등과 함께 천정배 전 의원이 출마한 광주 서구 을로 내려가 선거 지원에 나선다.

이와 관련,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동교

동계가 일주일전에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같은 결정은 선배 정치인들의 총의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면서 "(지원을 위해) 누가 오든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천 후보는 이날 호남 낙후 극복을 위해 지역평등특별법(가칭) 제정 추진과 대통령 직속 지역평등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할 뒤 "비 새정치연합 연대와 후보 단일화를 모색할 구체적 시간이 다가왔다. 연대 성사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도 오는 10일 광주시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승

후보를 위한 대대적 지원에 나선다. 이날 광주 현장최고위원회의에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다.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는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남구 노대동 빚고을 노인건강타운을 방문해 배식봉사활동을 한 뒤 광주 하계U대회 양궁장에서 윤장현 시장으로부터 대회 브리핑을 받고 경기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대표 및 소상공인 대표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DJ묘역 참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권노갑 상임고문(왼쪽)을 비롯한 동교동계 인사들이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상옥 청문회 '박종철사건' 은폐·축소 공방

### 야 "사퇴가 최소한의 양심" 여 "주도적 개입위치 아냐"

7일 열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연합 박안주 의원은 박 후보자의 당시 행적에 대해 "공범을 알면서도 수사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검찰로서 자괴 미랄이며 대법관 후보로 자격조차 논할 가치가 없다"며 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검찰 관계자 67%가 검찰 수사 중 가장 부끄럽게 생각

하는 사건이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이라며 "당장 사퇴하는 게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박 후보자는 "경찰의 조직적 사건 축소, 은폐를 밝히는 과정이 길고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말적검사로써 사건에 주도적으로 개입할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엄호에 나섰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당시 수사를 총괄하던 안상수 전 검사 등으로부터 은폐 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고, 박 후보자는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김동철 산업통상위원장 '국회산단혁신포럼 세미나' 개최

김동철(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장은 8일 오전 8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산단업단지혁신포럼 제4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노후거점산업 특별법)'이 오는 7월7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김성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이 '노후거점산업 특별법'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하고, 이종화 기획재정부 산업정보예산과장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노후거점산업 특별법'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을 보고한 후 참석자들로부터 질의를 받는다.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 위원장은 "노후거점산업특별법이 제정 취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산단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요한 만큼 7월 본격 시행에 앞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野 대권주자들 '성장론' 싸고 정책대결 조기점화

### 문제인 "소득성장" 안철수 "공정성장" 박원순 "복지성장"

### 안희정, 복지·성장 '선순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차기 대권주자들의 경제정책 경쟁이 조기 점화되는 분위기다.

경쟁은 당내 행사로 지난 6일부터 국회에서 시작된 정책엑스포에서 비롯됐다. 이 자리에서 문제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은 기초발제 등을 통해 자신의 경제정책을 소개하며 이념 논쟁을 벗어난 당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안 전 대표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성장론'을 주제로 기초발제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대표는 "한국 경제에서 불공정한 시장과 분배구조가 잠재력을 가로막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환경·분배·조세체계를 만들어 각 경제주체들이 혁신을 가능하게 해야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구조혁신·신산업전략·북방경제 등 3대 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문 대표가 가치로 내건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강조하면서 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 전 대표는 토론회 자료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의 경우 임금인상을 통한 선순환을 주장하지만,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정확히는 '혁신성장'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지만,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다른 것이 뭐냐는 질문이 많을 것 같아 '공정성장'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야권의 차기 대권 레이스에서 문 대표가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안 전 대표가 경제정책 분야에서 정부는 물론 문 대표와의 차별화를 시도해 존재감을 키우는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전날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제로 기초발제를 했던 문 대표도 이날 토론회를 찾아 안 전 대표의 발표를 경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지방자치 토론회에서 '복지성장론'이라는 주제로 기초연설을 했다.

박 시장은 배포한 연설문에서 "복지가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과 창조경제를 이뤄내고 결실을 나눠야 한다"며 "국민 모두를 초대해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복지성장론'이라는 담론을 사회적 의제로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명의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희정 충남지사도 8일 폐막식을 겸해 '냉전 복지를 넘어 시대대거로서의 복지'를 주제로 기초연설에 나서 복지·성장의 선순환 관계 구축을 역설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천정배 개소식 참석 지방의원 징계"

### 새정치 광주시장, 3명 해당행위로 윤리위 회부

4·29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후보 지원에 나서지 않고 무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지방의원 3명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에 따르면 중앙당은 지난 6일 광주시의회 김모 의원과 서구의회 김모·이모 의원 등 3명을 '해당(害黨)행위로 윤리심판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은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광주 서구를 지역구 출신으로 당의 적극적인 후보지원 요청에도 뒷짐을 지고 있는데다 최근 열린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광주지역 한 당원이 이들이 무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진을 첨부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소속 김 의원은 최근 전·현직 시의원이 35명이 같은당 조영택 후보 지원연에 나서지 않았지만 현역으로는 유일하게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다. 특히 김 의원은 전 후보의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지만, 같은당 조영택 후보의 개소식에는 참석하지 않아 당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윤리심판원은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9일 열리는 회의에서 해당 행위가 확인되면 출당 조치 등 징계를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김 의원은 "선거일이 아직 많이 남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친분과 향우자적으로 전 후보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을 뿐인데 이를 징계 한다는 것은 너무 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